

# 뒷간과 화장실 미학



김이 상 정 (우림교역대표/한화협 이사)

## 로마의 화장실은 레저타운?

### 세계의 화장실 문화 (유럽)

고대 힌두교도들에게 위생이라는 사랑은 거의 종교적인 철칙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들은 이미 기원전 3000여년경에 화장실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파키스탄의 인더스 강 골짜기에서는 테라코타(terra cotta)로 된 파이프가 갖춰진 개인용과 공중목욕탕이 발굴되기도 하였는데 놀랍게도 이 시설에는 물의 흐름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도꼭지까지 설치되어 있었다. 유럽에서의 화장실 역사는 1만 년 전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찾아볼 수 있다. 일찍이 배설물의 독성- 이것이 배설물을 받아들일 때의 동양과 서양의 가장 큰 관점 차이다-을 잘 알고 있던 고대 스코틀랜드인 들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물이 있는 근처에서 자리를 잡고 용무를 해결했다. 하지만 배설물을 집에서부터 씻어 내버릴 수 있는 수세식 배관 시스템을 처음으로 고안해낸 사람들은 스코틀랜드 연안 오크니섬 주민들이었다. 물론 오늘날의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조잡한 수준이기는 하지만 하수구가 돌집에서 개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추위에 떨며 밖에서 용변을 보지 않아도 되었다. 정교하기로 치자면 크레타 섬의 크네토스 궁전에 살았던 미노아 왕족의 화장실을 빼놓을 수 없다. 이미 기원전 3000년에 미노아 왕족들은 시멘트로 틈새를 이은 수직 석제 파이프를 이용하여 물을 채우고 빼낼 수 있는 욕조를 사용했다. 점차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은 오늘날의 것과 같이 유약을 바른 토

기 파이프로 바뀌었다. 이 화장실에서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편리한 대로 사용할 수 있었으며 배관을 통해 왕궁의 배설물을 밖으로 빼낼 수도 있었다. 이때 머리 위로 수조가 달린 화장실도 고안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인류 역사를 통틀어 최초의 수세식 화장실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수조는 빗물을 받아 사용하도록 되어 있었고 가물어 비가 충분히 오지 않을 경우에는 길어온 물을 부어 사용하였다. 화장실 기술의 발달은 고대 이집트인들 사이에서도 이루어졌다. 기원전 1500년경까지 이집트 귀족의 집에는 더운물과 찬 물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동관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전신목욕은 중요한 종교 의식의 한 가지였다. 그들은 육체의 정결함이 도덕적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믿었다.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했던 기원전 1000년경의 팔레스타인에는 복잡한 공공수도관이 설치되기도 하였다.

어느 장소에서 남자들이 '어디서 손을 씻죠?' 라고 묻거나 여자들이 '어디 분 비를 장소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이것은 틀림없이 화장실이 어디 있는냐고 묻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제법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실례 좀 해도 될까요?'라고 어눌하게 말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배설 행위를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그리고 배설행위를 하는 곳 즉, 화장실이라는 이름 그 자체를 표현하는데 있어서 수많은 완곡어법(婉曲語法)을 개발했다.

지난 몇 년간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고속도로 곳곳의 휴게소 화장실과 전국 여러 곳의 화장실이 비약적인 성장을 했으나 화장실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화장실에 대한 역사와 참고 자료들을 제공하기로 한다. 본 내용은 '호모토일렛(Homo Toilet)'에서 발췌하여 기술한다. (편집자)

이러한 경향은 어제, 오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격식을 그다지 차리지 않았던 - 야만적이라는 표현이 더 적당할 만한 - 서양의 중세에도 성(城)과 수도원(修道院)에서도 '필요한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16세기에 살았던 에라스무스는 서양 최초의 예절교본이라 할 수 있을 그의 책을 통하여 화장실과 그곳에서 행하는 육체 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그는 '방뇨나 배변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는 것은 실례이다'라고 충고하고 있으며 방귀에 대해서도 '방귀가 나올 때는 기침을 하여 그 소음을 숨기라!'고 얘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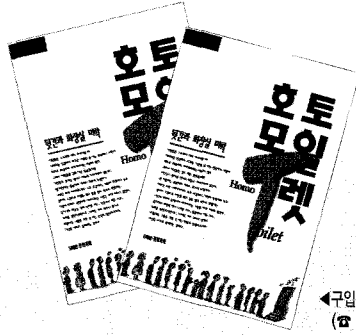
### 로마의 화장실은 레저타운?

목욕이라는 행위를 사교적인 행사로 만든 최초의 사람들은 기원전 2세기경의 고대 로마인들이었다. 그들은 오늘날의 눈으로도 상당히 사치스럽게 보일 수 있는 거대한 공중 목욕탕 단지를 건설했다. 사치스러운 생활을 즐기던 로마인들은 이 사교 목욕탕에 정원, 상점, 도서관, 운동실, 시(詩)를 읽기 위한 라운지까지 갖추고 있었다. 이것은 오늘날의 헬스클럽이나 스포츠 센터와 거의 유사한 형태이다. 카라칼라의 어떤 목욕탕은 로마인들에게 건강을 위한 활동과 미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 해 주었다. 바디오일을 바르고 때를 미는 곳, 열탕과 온탕, 냉탕, 사우나 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목욕탕뿐만 아니라 머리를 감고 향을 바르

고 곱슬거리게 하는 곳, 운동실 등이 있었다. 물론 이곳에서는 여러 가지 화장품들과 향수도 살 수 있었다. 운동과 목욕을 마친 후에 로마의 귀족들은 옆에 있는 도서관에 들러 독서를 즐기거나 강의실에서 예술과 철학(哲學)을 논할 수도 있었다. 화랑(畫廊)에서 갖가지 화려한 예술품들이 상시 전시되고 있었으며, 또 다른 방에서는 노예들이 쉴 새 없이 산해진미(山海珍味)와 포도주를 날라왔다. 오늘날로 치자면 거대한 유흥타운인 셈이다. 물론 이런 것들은 오늘날의 고급 사우나와 같은 유명인사용이었다. 차이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의 클럽이 오늘날의 것보다 규모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많은 멤버들이 이용했다는 것. 그리고 남성들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이다. 비슷하기는 하지만 여자들의 것은 남자들의 규모에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풍속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차로 변화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자를 위한 목욕시설과 남자를 위한 목욕시설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었지만 나중에는 혼욕(混浴)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로마인들의 성적인 타락과 무관하지 않는데 천주교에서 국가적 정책을 시행하던 초기 기독교 시대까지 혼욕의 풍속은 지속되었다. 그 후 1천 년이 지난 후 유럽에서는 다시 혼욕의 풍속이 유행하게 되었는데 이때 성문화의 타락은 극에 달할 지경이었다.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이태리어 '바지노(bagnio)'라는 말은 '목욕탕(bath)'과 '사창굴(brothel)' 두 가지를 모두 의미했다. 어쨌든

이 책은 고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각국 문화권의 흥미로운 특징을  
살피면서 화장실 밖의 문화까지 개관하여  
미래의 화장실 문화발전에  
이바지하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 다음호에 계속



◀구입문의 협의회 사무국  
(☎ 031-226-7001)

# 향수와 전염병

서기 500년경에 이르러 로마의 이같이 사치스러운 사  
우나는 모두 사라져버렸다.

## 로마의 유료화장실

로마제국은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장실 문화를 갖추  
었던 문명국이었다. 각 가정의 화장실은 물론 수세식  
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로마 시내에만 석조로 된 공  
중화장실이 144개 이상이나 있었다고 한다. 번영 일로  
를 달리던 로마제국은 계속되는 사치로 인하여 결국  
심각한 재정난에 빠지게 되었다. 당시 로마제국 인구  
중 80% 이상이 국가의 부양을 받아 살아가는 인구였  
다. 위기감을 느낀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부족한 세  
원(稅源)을 보충하기 위하여 골머리를 싸매야 했다.  
생각다 못한 황제는 로마 전역에 있는 공중화장실을  
모두 유료화시켰다. 이용을 하는 시민들은 이용료를  
내야했고 이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벌금을 내야했  
다. 배설을 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었  
으므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는 화장실 이용료로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었다. 이에 관한 재미있는 일화  
도 하나 있다. 어느 날 황제의 아들이 황제에게 이렇  
게 말했다. "냄새나는 화장실 이용료를 세금으로 걷다  
니 황제답지 않은 처사이십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  
제는 화장실 세금으로 징수한 금화(金貨)를 아들의 코  
에 갖다대며 말했다.

"이 금화에서 냄새가 난단 말이나?"

## 향수와 전염병

로마제국 멸망 이후 중세에 이르기까지 한동안 목욕  
과 일반적인 청결함은 유럽인들의 관심 거리가 아니  
었다. 전통적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육체가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가능한 억제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  
이다. 특히 몸을 다 드러내 놓아야 하는 전신목욕은  
유혹을 일으키는 못된 짓이라고 하여 금기(禁忌)시 했  
다. 그러한 견해는 기독교의 전파와 더불어 전 유럽에  
급속히 퍼졌고 유럽 사람들은 침례(浸禮)를 받을 때  
이외에는 거의 목욕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몸에서 심한 악취를 풍겼다. 서양의 향수 문  
화 발전은 이러한 당시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귀족  
들은 향수(香水)를 이용하여 몸에서 나는 악취를 감출  
수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럴 수 없었다. 유럽에  
서 목욕문화가 사라지게 되면서 실내 화장실을 만드  
는 일도 곧 없어져 버렸다. 화장 실 문화의 초기 단계  
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뒷간, 야외변소, 요강이 사회  
의 전 계층에 다시 등장하게 되었다. 바야흐로 중세의  
유럽은 '화장실의 복고풍 시대'였던 것이다. 유럽의 불  
결한 풍속에 기독교와 더불어 가세(加勢)한 것은 잘못  
된 의학적 미신(迷信)이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당시  
의 의학은 목욕을 하는 것을 건강에 좋지 않다고 가르  
치고 있었다. 덕분에 수백 년 이상 거의 매해마다 전  
염병이 창궐(猖獗)했고 이때 유럽 인구의 10분의 1이  
상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등지고 말았다.

